

6월민주항쟁 1주년기념추진의

수 신 각 언론사 사진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6월민주항쟁1주년기념추진위(문의:참여연대 연대사업국 박원석: 723-4250)
제 목 6.10 11주년에 즈음한 개혁촉구 각계인사 610인선언 보도자료
날 짜 1998. 6. 9. (총 4쪽)

보 도 자 료

6월 민주항쟁 11주년에 즈음한 각계 610인 선언 발표 -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일시 및 장소 : 98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명동성당 입구

1. 각계의 사회 원로를 비롯한 610인의 인사들은 6월 항쟁 11주년을 맞이하여 6월 9일 오전 10시 정부의 개혁을 촉구하는 각계인사 610인의 선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2. 각계의 지도적 인사들로 구성된 610인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과 개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 수구, 기득권 세력 척결과 개혁주체의 형성
 - 강력하고 과감한 사회·경제적 개혁의 단행
 - 공정한 고통분담과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의 조성
 -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의 구성
3. 선언자들은 특히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서제출, 청문회 진행,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소추의 권한을 갖는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를 통해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임을 강조하고 구성을 촉구하였다.
4. 이번 선언에는 강문규(시민협 공동대표), 변형윤(서울대 명예교수), 강만길(고려대 교수), 이돈명(변호사), 김찬국(상지대 총장), 이효재(여성단체연합 고문), 박형규(목사), 김금수(민주노총 지도위원), 이세중(변호사), 백기완(전국연합 고문)등 각계의 원로와 대표적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기자회견에는 김중배(金重培, 참여연대공동대표), 최영도(崔永道, 민변 회장), 이창복(李昌馥, 전국연합 상임의장), 권영길(權永吉, 국민승리 21 대표), 최열(崔列, 한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우정(평화를만드는여성회), 지은희(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유종성(경실련 사무총장), 이갑용(민주노총위원장)등이 참석하였다. 끝

※선언자 전체 명단(610인외 205인 포함 전체 814인)이 필요하신분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연대사업부장 박원석, 723-4250, 011-457-9514)

<6월 민주항쟁 11주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위기극복과 개혁을 위한 각계 인사 610인 선언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함

98년 6월 9일(화) 오전 10시 명동성당 입구

■ 순 서 ■

1. 사회 :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 취지말씀
3. 시국선언 낭독
4. 질의·응답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 6월 민주항쟁 11주년에 부치는 각계 인사 610인의 시국선언 -

올해로 우리는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6·10항쟁 11돌을 맞이한다.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군부독재를 퇴각시킨 6·10 항쟁정신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올해 더욱 빛을 발한다. 우리는 6·10항쟁 11주년을 맞이하며 범국민적 민주화 열망과 사회·경제적 개혁의 요구, 책임있는 정치에 대한 기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 연말 불어닥친 금융·외환위기와 국제통화기금의 '경제개혁조치' 도입 이후 우리에게 닥친 것은 비극적 실업사태와 노숙자들의 등장, 빈부격차의 확대와 전례 없는 '연쇄 자살사태'이다. 고도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부실과 불평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의 힘을 축적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국가기반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니며,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권위주의 정치체제, 관료주도하의 관치금융과 재벌체제 중심의 낙후한 경제시스템, 만연된 부패구조가 빚어낸 총체적인 위기이며 개발독재식 성장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이다. 500만에 가까운 국민이 실업의 위협에 처한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파탄을 막을 사회적 안전망이 이토록 취약한 것은 고도성장의 어두운 그늘을 반증한다.

위기는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낡은 성장체제를 바꿔야 한다. 총량적 성장주의를 버리고 '분배의 정의'와 '삶의 질'을 동반한 안정된 성장을 향해 국가발전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성장전략을 주도해온 구정치세력과 관료, 재벌의 지도력으로는 이 길을 선택할 수 없다. 이들의 사고와 가치관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제 새로운 전망을 추구할 세력과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한 때이다.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룬 현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그러나, 국민은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지만 기대했던 개혁정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주도 세력의 교체'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지도력이 교체되고 새로운 철학과 방식으로 국가개혁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의미는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역설했지만 민주주의도, 경제성장도, 또 이 두가지의 밑바탕이 되는 개혁정치도 모두 놓치고 있다. 정치·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개혁 세력은 건재한 반면 개혁의 주체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전문성과 경험이라는 미명아래 구세력이 부활하고 있으며, 국가를 파산시킨 관료들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정책을 맡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혁은 사회적 합의 기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고통분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달라지는 것은 없이 고통만 전담한다는 불만과 불안을 애써 억누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정권의 실패로 성급히 예단하지 않는다. 이는 개혁을 유보함으로써 나타난 좌절이다.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또한 그것이 김대중 정부의 역사적 소임일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구체제와의 철저한 싸움 없이 개혁은 있을수 없다.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개혁 추진세력의 부재, 보수언론의 공격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김영삼 정권의 선례를 현 정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일찍 새 정부의 개혁정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수구, 기득권세력을 척결하고 개혁의 주체세력을 확고히 세워야한다

국민을 개혁정치의 주인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위기'는 정부가 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다. 모든 개혁세력과 연대하여 부패하고 무능한 제도와 인물을 교체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주체와 동반자가 분명해져야 한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파산시킨 구인물을 동용하고 구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개혁' 일 수 없다.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구·기득권세력을 과감히 척결하고 개혁의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한다. 구관료와 기득권세력으로 채워진 정부의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모든 개혁세력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적극적인 동반자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범국민적인 개혁운동을 위해 나서야 한다.

2. 강력하고 과감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고도성장의 특혜를 일방적으로 누려온 재벌과 기득권층은 국가적 고통을 나누려하지 않고 있다. 정치·행정·관료 개혁은 너무도 부진하며, 무소불위의 언론 역시 과거의 위세를 자랑하며 민주화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다. 더 이상 미룬다면 개혁은 이들에 의해 포위되고 실종되고 말 것이다. 더 늦기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과감한 사회·경제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특히 재벌개혁과 행정개혁이 당면 사회·경제적 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다. 관치금융과 과점적 재벌체제로 인해 시장기능이 왜곡되어 있고 금융위기로 시장이 작동되지 않는 조건에서 시장을 통한 자율적인 금융·재벌개혁은 불가능 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정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권위주의 정권시절과 같은 무법적인 강제조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등 법규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실기업에 대한 판단과 처리의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원칙적인 구조조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8일 이후 6개월은 경제관료에 의존한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을 일신하지 않고서는 정부의 개혁정책은 입안 단계에서부터 왜곡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2차행정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부처의 통폐합'을 통한 몸집 줄이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태의연한 인물을 교체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관치금융과 재벌특혜등 부정부패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경제관료조직의 일대 개혁을 촉구한다.

3.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은 당면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고통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또한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앞으로도 부실기업 정리 과정에서 보다 큰 국민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며, 이 또한 함께 나눠지고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힘없는 서민들만이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재벌개혁도 정치·행정개혁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실업과 세부담증가로 서민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이로인해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 공정한 고통분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지지는 형성될 수 없다.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고통분담과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재벌개혁, 행정개혁등 과감한 개혁조치와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조세의 형평성 제고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혁과 사회적 합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금의 국가적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 지 규명해야 한다. 침몰하는 배의 구명난 곳을 방지하고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항해를 계속 하겠는가.

나라를 망친 책임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도 없이 어떻게 국민적 고통분담에 대한 동의가 가능하겠는가. 다시 뛰기 위해 우리는 왜 넘어졌는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4.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과거의 반민주적 전통과 단절하기 위해, 그리고 개혁정치를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규명하는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상과 책임의 온전한 규명 없이, 정치논리로 이를 덮어버리는 것은 개혁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점에서 우리는 외환위기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위기의 본질과 진상을 축소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이 엄청난 재난의 책임을 어떻게 강경식, 김인호 두사람의 단죄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작금의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 제품집 불리기에 몰두하다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재벌, 그리고 그들간의 검은 유착관계에 있음을 단호히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정치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는 법률에 근거하여 보고서제출, 청문회 진행,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소추등의 권한을 갖는 명실상부한 기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한보청문회'와 같은 요식절차로 그치지 않기 위해 국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과거를 단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정하고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다. 또한 이는 몇사람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묻고 제도와 체제의 원인까지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뜻을 함께 모은 우리는 6월민주항쟁 11주기를 맞이하여 다시한번 모든 개혁세력이 힘을모아 <국가위기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출발로서 사회지도자들의 [시국대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1998년 6월 9일

시국선언 610인 일동 (이하 명단)

<여성>

강혜숙(충북여민회), 고은광순(여한의사회), 고송자(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경애(동덕여대 교수), 김경희(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경희(제주여민회), 김덕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운옥(정신대문제대책협), 김난경(대구여성회), 김명현(여신학자협의회), 김상희(한국여성민우회), 김순영(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신실(교회여성연합회), 김은희(대구여성회), 김인순(화가), 김예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김예자(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조숙자(포항여성회), 김현선(새움터), 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김희전(전북여성운동연합), 김희전(한여노협), 남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도경진(광주여성회), 민경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명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박문숙, 박상희(전북여성운동연합), 박영미(한국여성연구회), 박영숙(여성환경네트워크), 박찬숙(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송연희(전북여성운동연합), 서옥례(전국여성농민회), 선순화(기독교여민회), 성명옥(여신학자협의회), 신필균(크리스찬아카데미 사회교육원), 신혜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신혜숙(부산성폭력상담소), 안임수(한국여성의전화연합), 안향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엄미숙(전북여성운동연합), 오성숙(참교육학부모회), 오영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우순열(대구여성회), 우정애(대구함께하는주부모임), 원미정(시의원), 유가호(한국여성의전화연합), 유옥순(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윤순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윤영애(여신학자협의회), 이강실(전북여성운동연합), 이경숙(한국여성민우회), 이계경(여성신문), 이금라(시의원), 이기숙(이상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이문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상영(환경마크협회), 이수애(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승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영순(시의원), 이우정(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은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은영(외국어대 법학), 이은주(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은주(이상 제주여민회), 이정옥(교회여성연합회), 이철순(한국여성노동자협), 이현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해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이혜숙(교회여성연합회), 이호순(여신학자협의회), 이효재(한국여성단체연합), 임남희(한국보육교사회), 장정임(경남여성회),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정영

애, 정진경(충북여민회), 정현백(한국여성연구회), 정희연(한국보육교사회), 조미리(교회여성연합회), 조영숙(여성단체연합), 조화순(한국여성단체연합), 지은희(한국여성단체연합), 최만자(평화를만드는여성회), 최미애(충북여민회), 최미혜(한국여성노동자협), 최상림(한국여성노동자협), 최순영, 최양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최영애(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희(내일신문), 최정희(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하춘자(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하춘자(전북여성운동연합), 한명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명희(한국여성단체연합), 한옥자(수원여성회), 함정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황선희(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학계>

강내희(중앙대 영문학), 강만길(고려대 사학), 강정구(동국대 사회학), 강치원(강원대 사학), 고철환(서울대 해양학), 고홍석(전북대 농공학), 곽노현(방송대 법학), 권광식(방송대 경제학), 권인호(대진대 철학), 김대환(인하대 경제학), 김백일(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김상곤(한신대 경영학), 김상기(경북대 농경제학), 김인걸(서울대 국사학), 김종인(원광대 보건행정학), 김진균(서울대 사회학), 김진업(성공회대 사회학), 김찬국(상지대 총장), 문병란(조선대 국문학), 박거용(상명대 영어교육),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 박종진(숙명여대 역사학), 박진도(충남대 경제학), 변형운(서울대명예교수 경제학), 배영동(전북대 사회교육), 백도명(서울대 보건학), 서창호(목포대 행정학), 손규태(성공회대 신학), 송기숙(전남대 국문학), 안병욱(가톨릭대 사학), 염무웅(영남대 독문학), 유일상(건국대 신문방송), 유초하(충북대 철학), 윤덕홍(대구대 사회교육), 이광우(전남대 정치외교학), 이성백(시립대 철학), 이이화(전역사문제연구소장), 이재정(성공회대 총장), 이종수(광주대 출판광고), , 이해영(한신대 국제관계), 장임원(중앙대 예방의학), 정재정(시립대 국사학), 주동황(광운대 신문방송), 하일민(부산대 철학), 허평길(부산대 일반사회교육),

<사회운동>

강명구(서울대신문학,환경련), 강문규(한국시민단체협의회), 강민조(유가협), 강연균(전국연합 지도위원), 강희남(전국연합 고문), 계훈제(전국연합 고문), 고광석(전국연합 지도위원), 고철환(서울대해양학,환경련), 구희현(전교조), 구희숙(환경련), 권오현(민가협), 권용우(성신여대지리학,경실련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권종대(전국연합 지도위원), 권진관(성공회대신학과,참여연대), 김광철(전교조), 김귀식(전교조위원장), 김금수(전국연합 지도위원), 김동춘(성공회대사회학,참여연대), 김동훈(경불련), 김봉준(화가,환경련), 김상근(전국연합 지도위원), 김석준(이대교수,경실련상집부위원장), 김승훈(신부환경련), 김실경(전농), 김영현(민족문화작가회의,환경련), 김용채(변호사,경실련중앙위부의장), 김윤환(고대명예교수,경실련공동대표), 김용곤(전교조), 김재남(녹색연합), 김정문(건강을위한시민의모임), 김정숙(민가협), 김정현(전국민족미술연합대표,환경련), 김준규(전농), 김준묵(미래미디어대표,환경련), 김중배(언론인,참여연대공동대표), 김지현(키스원에이전시대표,참여연대집행위원), 김진경(전교조), 김진현(서울시립대총장,환경련), 김창국(변호사,참여연대공동대표), 김창렬(자생식물단체연합회회장), 김철준(변호사,참여연대), 김택성(열린사회시민연합), 김현배(전국연합 사무처장), 김혜수(유가협), 김호철(변호사,환경련), 김홍영(전교조), 남궁산(환경련), 노수희(전국연합), 노옥희(전교조), 노윤희(녹색연합), 문선겸(논지당,환경련), 문성호(전교조), 박상증(목사,참여연대공동대표), 박세길(전국연합 정책위원장), 박연관(전교조), 박연순(전농), 박용길(전국연합 고문), 박용일(변호사,환경련),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박원순(변호사,참여연대사무처장), 박일범(전교조), 박재일(한실림대표), 박정기(유가협), 박종권(환경련), 박현서(전국연합), 배다지(전국연합 공동의장), 배은심(유가협), 배춘일(전교조), 백규현(전농), 백기완(전국연합 고문), 백승대(영남대학교수,대구참여연대운영위원장), 소영진(대구대학교수,대구참여연대집행위원장),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손혁재(정치학박사,참여연대), 송대수(전농), 송방호(건강을위한시민의모임), 송병주(전농), 송상용(한림대사학과,환경련), 신경림(환경련대표), 신평식(참여연대), 신벽향(교통장애인협회), 신창균(전국연합 고문), 신철영(경제살리기법국민운동사무처장), 심성구(열린사회시민연합 의장), 안경환(서울대학교수,참여연대운영위원장), 안영도(변호사,참여연대), 양길승(성수의원원장,참여연대집행위원장), 양병이(서울대학교수,환경련), 양재혁(성대학교수,환경련), 오병운(전국연합), 오창균(전교조), 원유술(신부, 대구참여연대 대표), 원학운(전교조), 유수용(전교조), 유재현(경실련환경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유종성(경실련사무총장), 유종순(열린사회시민연합공동대표), 유혁(전국연합), 유현석(변호사,경실련공동대표), 유홍준(영남대미대,환경련), 윤영규(전국연합), 윤준하(서울환경련 의장), 윤혜정(민가협), 이갑용(민주노동위원장), 이강현(불련티어21소장), 이남규(전교조), 이대훈(참여연대협동처장), 이덕우(전국연합), 이돈

명(전국연합 고문), 이동진(전교조), 이봉기(전철협중앙회), 이부영(전교조), 이석태(변호사, 환경련), 이석형(변호사,경실련), 이설조(불국사주지,경실련공동대표), 이성섭(숭실대학교수,경실련정책위원장), 이세중(변호사,환경련 대표), 이소선(전국연합 고문), 이수금(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일(전교조), 이수호(전교조부위원장), 이수훈(환경련), 이승렬(전농), 이시재(카톨릭대학교수,환경련), 이양원(법률신문논설위원,환경련), 이영주(전교조), 이영희(전국연합), 이용관(전교조), 이용중(전교조), 이인현(시민환경연구소부소장), 이장현(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이장호(전농), 이장호(영화감독,환경련), 이장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정옥(대구효성카톨릭대), 이정자(녹색소비자연대), 이종오(계명대사회학,대구참여연대대표), 이창복(전국연합 상임의장), 이필상(고대경영대,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장), 이항규(EUPEC동아시아지사장,환경련), 이형모(시민의신문사장,경실련), 이호승(전철협중앙회), 이호영(전교조), 임삼진(녹색교통), 임영달(석왕사스님,환경련), 임옥상(화가,환경련), 임진택(연극인,환경련), 임춘식(평화종합사회복지관관장,환경련), 임통일(교통장애인협회), 장두완(역사비평대표,환경련), 장원(녹색연합 사무총장), 장하성(고려대학교수,참여연대), 정광훈(전농), 정수용(전농), 정연국(전교조), 정현찬(전농), 조건명(기산대표,환경련), 조국현(전농), 조상호(나남출판대표,환경련), 조성우(전농), 조양원(전국연합), 조양익(전국연합), 조양진(월간 말 대표,환경련), 조영옥(전교조), 조준희(변호사,환경련), 조흥식(서울대학교수,참여연대), 조희연(성공회대학교수,참여연대정책위원장), 차병직(변호사,참여연대협동처장), 채수일(목사,참여연대), 천영세(전국연합지도위원), 최교진(전교조), 최병모(변호사,환경련), 최봉규(유기협), 최봉태(변호사, 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 최승은(치과의사,환경련), 최승호(시인,환경련), 최열(환경련사무총장), 최정명(해맞이모임운영위원,환경련), 최현섭(정의로운사회를위한교육운동협의회), 하성규(중앙대학교수,경실련), 하해룡(전농), 한 대삼(변호사,환경련), 한병용(참여연대), 한상렬(전국연합 지도위원), 한상범(동국대법학,참여연대 고문), 한충목(전국연합집행위원장), 허영춘(유기협), 허활석(열린사회시민연합사무처장), 황상익(서울의대교수,환경련), 권언열(환경련), 김혜정(환경련), 민만기(녹색교통), 박홍순(열린사회시민연합), 유수훈(환경련), 김혜애(녹색연합), 김기식(참여연대사무국장), 김선균(열린사회복지시민회), 오종근(열린사회강동송파시민회), 이승규(열린사회시민연합), 최예웅(환경련), 황상규(환경련)

<청년>

강기정(한청협), 강성국(전대협동우회), 김재웅(전대협동우회), 김종식(전대협동우회), 김종원(한청협), 박영호(한청협), 박형룡(한청협), 복기왕(전대협동우회), 송갑석(전대협동우회), 양정용(전대협동우회), 오영식(전대협동우회), 우상호(전대협동우회), 유기홍(한청협), 유문중(한청협), 이인영(전대협동우회), 임종석(전대협동우회), 함운경(한청협), 홍만희(한청협),

<법조>

강금실(변호사), 김주영(변호사), 박수근(변호사), 박연철(민변부회장, 변호사), 박형상(변호사), 송두환(민변부회장, 변호사), 오종한(변호사), 유종원(변호사), 윤종현(민변사무총장, 변호사), 이경우(변호사), 이백수(변호사), 이인호(변호사), 임영화(변호사), 임종인(변호사), 임채균(변호사), 조광희(변호사), 조상희(변호사), 최병모(민변부회장, 변호사), 최영도(민변회장,변호사), 최일숙(변호사), 한택근(변호사)

<보건의료>

강봉주(건약 서경지부장), 김종민(건치), 김채운(건약 부회장), 리병도(건약 부회장), 배강원(건치), 신동근(건치), 이상훈(건치), 이원준(건치), 이형구(건치), 이홍수(건치), 임종철(건약 부회장), 전동균(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회장), 전민용(건치), 정진구(건치), 정창권(건치), 정태환(건치), 주형식(건약 부회장), 최인순(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회장),

<종교>

권미경(기독교여성회총무), 김광수(목사), 김해성(목사), 김형기(목사), 나핵집(목사), 나효우(기독교사회선교협 총무), 박경양(목사), 박종렬(목사), 박형규(목사), 박후임(목사), 백남운(목사), 손은하(목사), 안재웅(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장), 오용식(목사), 오충일(목사), 이근목(목사), 이명남(목사), 이영호(목사), 이재호(목사), 이정석(기청협 총무), 이춘섭(목사), 이해동(목사), 임광빈(목사), 장성룡(목사), 정동근(기노련 회장), 정명기(목사), 정진동

(목사), 정해동(목사), 조재국(목사), 조화순(목사), 최의팔(목사), 홍성현(목사) - 이상 기독교

강명호, 강성식, 김남수, 김미경, 김춘길, 도각스님, 무여스님, 박성철, 박진우, 박희택, 법광스님, 법안스님, 법현스님, 서동석, 성관스님, 양한웅, 원종스님, 원타스님, 원혜스님, 유지원, 일문스님, 자성스님, 장적스님, 정산스님, 정웅정, 종림스님, 지선스님, 지원스님, 지홍스님, 진관스님, 진우스님, 청화스님, 최연, 최철호, 토진스님, 혜조스님, 효림스님 - 이상 불교

곽준석(신부), 곽한왕(인천 정평위 총무), 김국진(신부), 김남오(신부), 김녕(서강대학교수), 김봉술(신부), 김상수(신부), 김상호(신부), 김선실(천정연 교육위원장), 김선태(신부), 김승훈(신부), 김영석(신부), 김영욱(신부), 김영태(신부), 김용수(한양대학교수), 김용민(신부), 김원호(천정연공동대표), 김인국(신부), 김종훈(신부), 김진주, 김진화(신부), 김태봉(변호사), 김택암(신부), 김항섭(우리신학연구소), 김형태(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장), 김홍진(신부), 남경철(신부), 남국현(신부), 남승택(신부), 남학현(신부), 노재형(변호사), 노진민(천정연 재정위원장), 문국주(천정연 공동대표), 문규현(신부), 문재인(변호사), 문한성(변호사), 박기호(신부), 박명근(신부), 박순희(천정연 공동대표), 박승원(신부), 박인근(신부), 박창균(신부), 박철일(신부), 변연식, 배상복(신부), 백남해(신부), 성염(서강대학교수), 손덕만(신부), 송기인(신부), 신대운(천정연공동대표), 신성국(신부), 신인용(신부), 안충식(신부), 양요섭(신부), 양준석(빛두레 신앙인학교), 여인석(신부), 오동영(신부), 오두희(노사목전국협의회),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유병희(천정연 홍보위원장), 유철(신부), 윤순녀(천주교여성공동체), 윤창호(신부), 윤희동(신부), 이건영(변호사), 이국성(변호사), 이상원(신부), 이석범(변호사), 이성균(신부), 이성렬(신부), 이승용(신부), 이영우(신부), 이원태(신부), 이유정(변호사), 이재만(신부), 이재영(신부), 이종걸(변호사), 이철학(신부), 이청주(신부), 이현주(변호사), 장루시아(수녀), 장효강(신부), 전종훈(신부), 정경희(천정연공동대표), 정웅태(변호사), 정을진(천주교 도시빈민회장), 정의철(신부), 정진호(신부), 조성제(신부), 조성학(신부), 조옥종(신부), 주영돈(신부), 진선진(신부), 차광호(신부), 최광조(신부), 최광혁(신부), 최병모(변호사), 최석완(변호사), 최이레네(수녀), 최정묵(신부), 최현숙(장기수후원회), 한상욱(가톨릭 인천연대), 함세웅(신부), 허중식(신부), 홍승의(신부), 홍현웅(신부), 황병석(신부), 황세현(변호사) - 이상 천주교

<방송>

김경화(FEBC), 김귀진, 김영식(TBS), 김유열(EBS), 김환균(MBC), 문태준(BBS), 박상완(CBS), 박종성(PD연합회), 박종인(PBC), 배인수(EBS), 성수일, 신경섭, 신경섭(KBS), 신권철(MBC), 안병규(EBS), 안혁(CBS), 오강선(KBS), 오준석(CBS), 이기완, 이영준(BBS), 이재명, 이재석(PBC), 이재현, 이정명(TBS), 이창대(SBS), 이창섭, 장광호(SBS), 장기량(KBS), 장해랑(PD연합회장), 장호신, 정경구, 정길화(MBC), 정환식(SBS), 한기봉(FEBC), 허태정(MBC)

이상 610인 외 204인 (전체합계 814인)

강대승(진주환경련), 강임준(군산연합), 구자상(부산환경련), 구춘서(춘천환경련), 권처홍(울산연합), 권혁장(대구 참여연대), 김광수(부산연합), 김광식(대전환경련), 김국래(인천연합), 김근래(경기동부연합), 김도형(광주지역 천주교 청년연합), 김동호(인천연합), 김석봉(진주환경련), 김성곤(군산연합), 김수연(창녕환경련), 김영욱(김제연합), 김영욱(경기동부연합), 김영은(인천연합), 김영이(서부경남연합), 김영화(대전충남연합), 김익영(경기남부연합), 김자두(남해환경련), 김재명(서부경남연합), 김재훈(서울연합), 김정규(서부경남연합), 김정명(여수환경련), 김제선(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김종일(서울연합), 김종훈(울산연합), 김준형(충주환경련), 김중철(대구참여연대), 김지철(대전충남연합), 김진석(울산연합), 김창년(경기동부연합), 김창수(김제연합), 김창현(울산연합), 김철수(마산창원환경련), 김향진(부산연합), 김현성(광주전남연합), 김현철(경기남부연합), 김형우(김제연합), 노옥희(울산연합), 도영호(경기남부연합), 류중구(여수환경련), 문성주(군산연합), 문성호(대전충남연합), 문정현(대전충남연합), 문창식(대구환경련), 문희태(광주전남연합), 민명수(대전참여자치연대 공동의장), 민병열(부산연합), 민영수(대전환경련), 박계성(여수환경련), 박광선(인천연합), 박광희(서부경남연합), 박기성(여수환경련), 박기학(서울연합), 박덕환(대구참여연대), 박두규(광양환경련), 박심배(광주전남연합), 박영관(부산연합), 박영미(부산연합)

합), 박영순(대전충남연합), 박용래(목사, 대전참여자치연대 공동의장), 박용환(김제연합), 박우형(경기동부연합), 박장홍(부산연합), 박진우(제주환경련), 박창균(서부경남연합), 박태철(남해환경련), 박환우(평택환경련), 박희홍(횡성환경련), 배기홍(부산연합), 배동혁(창녕환경련), 백운길(마산창원환경련), 백은숙(서부경남연합), 변규철(경기동부연합), 서왕석(여수환경련), 서주원(인천환경련), 서한태(목포환경련), 성광진(대전충남연합), 성한용(서부경남연합), 손덕만(부산환경련), 손영익(횡성환경련), 송인성(광주환경련), 송정제(부산환경련), 신명식(대전참여자치연대 협동처장), 신명식(대전환경련), 신성봉(울산연합), 신장호(경기동부연합), 안명균(안양환경련), 안병후(진주환경련), 안승찬(울산연합), 안종훈(광양환경련), 안행강(광주환경련), 양운진(마산창원환경련), 양현수(충남대교수, 대전참여자치연대 대표의장), 엄수훈(거제환경련), 엄재열(대구환경련), 연제식(충주환경련), 염병열(충주환경련), 염형철(청주환경련), 오구균(광주환경련), 오금수(대전충남연합), 오수진(대전환경련), 오수환(대전충남연합), 오운근(제주환경련), 오종렬(광주전남연합), 오혜란(인천연합), 우용태(부산환경련), 우위영(경기동부연합), 원학운(인천연합), 윤미숙(거제환경련), 윤소하(광주전남연합), 윤용배(경기동부연합), 윤장현(광주환경련), 이경수(경기동부연합), 이광조(목포환경련), 이규철(마산창원환경련), 이규환(김제연합), 이덕준(광주전남연합), 이동원(광양환경련), 이미혜(인천연합), 이민규(대전충남연합), 이민우(대전충남연합), 이봉효(대전충남연합), 이상호(경기남부연합), 이성기(광주환경련), 이성우(부산연합), 이성한(김제연합), 이세기(광양환경련), 이세우(김제연합), 이열호(목포환경련), 이용규(인천연합), 이은미(울산연합), 이인식(마산창원환경련), 이재용(천주교 청년공동체), 이정이(부산연합), 이종대(대전충남연합), 이종만(안양환경련), 이천재(서울연합), 이충재(대전참여자치연대 협동처장), 이태영(경기동부연합), 이하섭(서울연합), 이행규(거제환경련), 이혁희(경기남부연합), 이형수(인천연합), 임정와(열린사회영등포시민회), 임현택(열린사회구로시민회), 임희자(마산창원환경련), 장석근(목포환경련), 장세문(대전충남연합), 전봉호(진주환경련), 정광훈(광주전남연합), 정구선(광주환경련), 정근성(한국 가톨릭 대학생 협의회), 정동민(서부경남연합), 정동석(인천연합), 정보선(인천연합), 정상배(제주환경련), 정수용(대전충남연합), 정순곤(경기남부연합), 정연철(경기남부연합), 정오균(광주전남연합), 정원실(광주전남연합), 정원용(열린사회시민연합), 정재교(인천연합), 정지강(목사, 대전참여자치연대 공동의장), 정창현(서부경남연합), 정학(대구환경련대표), 정한식(인천연합), 정형주(경기동부연합), 조덕수(경기동부연합), 조두연(전주환경련), 조상현(목포환경련), 조세윤(남해환경련), 조여옥(경기남부연합), 주영남(열린사회동대문중앙시민회), 주용기(전주환경련), 진경희(대전환경련), 진관(광주전남연합), 진옥(여수환경련), 차정화(울산연합), 채규구(대전충남연합), 채성식(대전충남연합), 천병태(울산연합), 천상국(여수환경련), 최교진(대전참여자치연대 실행위원장), 최교진(대전충남연합), 최근호(경기남부연합), 최낙민(김제연합), 최병두(김제연합), 최연정(한국가톨릭 노동청년연합회), 최운현(서부경남연합), 최인태(서부경남연합), 최현주(경기남부연합), 최현진(김제연합), 하정우(서부경남연합), 한동근(경기남부연합), 한상욱(인천연합), 한훈섭(광양환경련), 홍성훈(인천환경련), 홍순석(경기동부연합), 황개순(평택환경련)